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0. 1.(목)

의료 AI 실증 생태계, 병원과 기업간 현장 소통으로 내실 다진다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방문해 데이터
기반 의료 AI 실증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0월 1일(목)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AI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실증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의료 AI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의료 AI 제품과 서비스의 임상적 효과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21개 의료 AI 중소기업과 22개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선정·매칭하였으며 2026년 12월 말까지 총 48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의료 AI 중소기업(수요기관)은 의료 AI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중 제품·서비스를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활용 근거 도출(RWD, Real World Data)이 필요한 기업들이 선발되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공급기관)은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연구 및 의료 AI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7개 연합체(45개 의료기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방문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주)숨빛에이아이, (주)에이비스의 기술을 시연하고, 데이터 연동과 임상 적용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숨빛에이아이는 흉부 엑스레이(X-ray) 영상을 AI로 분석해 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예비 판독 소견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술을 보였으며, (주)에이비스는 환자의 조직검사 이미지를 AI로 분석해 암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을 실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전체 시험대(테스트베드)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데이터 추출이 아닌 병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실증환경 구축과 목표 산출물 도출이 사업의 핵심인 만큼, 연동 진행 상황과 산출물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 AI가 실제 진료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확인되는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신속히 반영하여 의료 AI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실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여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어려움들을 적극 해소하여 병원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실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의료 AI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개요
2.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044-202-2940)
		담당자	사무관	김민혜 (044-202-2625)
담당 부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데이터활용지원사업단	책임자	단 장	정집민 (02-6263-8334)
		담당자	팀 장	임대홍 (02-6263-8349)

붙임 1

2026년 의료 AI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개요

- (목적) 개발된 의료 AI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을 실제 의료 현장(Real-world)에서 검증하여 의료기관 AX 기반 마련
- (지원내용) 의료 AI 제품의 특성에 따라 유형 분류하여 지원

과제 유형	규모	과제수	지원 조건
유형 1. AI 기반 임상 적용	(다기관) 5억 원	4개	식약처 인허가 완료된 AI 디지털의료기기 (진단보조, 예후예측 등)
	(단일기관) 2.5억 원	8개	
유형 2. 워크플로우 효율화	2억 원	10개	非의료기기 병원 운영·관리 AI (기록 자동화, 표준화, 모니터링 등)

※ 정부지원금은 (유형 1(다기관) 5억, 유형1(단일) 2.5억, 유형 2 2억)의 80%이며, 기업의 자기부담금은 과제단가의 20% 내외(소기업 15%, 중기업 25%) 적용

- (지원대상)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 AI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형태 실증 지원
 - (유형 1) 의료 AI 의료기기를 통해 실사용 근거 수집이 가능한 병원
 - (유형 2) 의료 AI와 원내 시스템 연동이 가능한 병원
- (지원 기간) 단년도 지원하되, 차년도 말까지 성과 관리
 - * (예) '26년 선정 22개 과제는 26년 내 예산 소진하고, '27.12.31까지 성과 관리
- (예산) 48억 원

- (주요내용) 45개 의료기관(7개 권소시업)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 데이터 활용 인프라·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20년~)
- 기관 간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진단, 검사, 약제, 처치 등 기초 정보를 공통 구조를 가진 데이터셋(Baseline DB)으로 구축
- 의료기관 CIO(최고정보책임자) 중심으로 데이터 전담조직, 데이터 심의위원회*(DRB) 운영

* 데이터 제공 여부, 가명처리 방법 등에 관한 적정성 검토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

구분		기관명	기관수
총계			45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1	(주관기관) <u>고려대학교의료원</u>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부속안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길병원,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7개
	2	(주관기관) <u>부산대학교병원</u>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6개
	3	(주관기관) <u>삼성서울병원</u> , 한양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강북삼성병원, 분당차병원	5개
	4	(주관기관) <u>서울대학교병원</u>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8개
	5	(주관기관) <u>서울성모병원</u> ,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중앙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5개
	6	(주관기관) <u>연세세브란스병원</u> ,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6개
	7	(주관기관) <u>한림대학교성심병원</u>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길안과병원	8개